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014년이 시작된 지 석 달을 지나는 이즈음 매일 섭씨 40도 중반을 오락가락하며 에어컨마저 별 소용이 없게 느껴지던 지난여름의 그 가물고 뜨거웠던 열기는 다행히 고개를 수그렸지만 대신 모기가 창궐해서 뎅기열에 위협을 받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산 너머 산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길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므로 일하시는 주인을 따라 그분의 종 된 저희들 역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알려 드리고 기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에 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Pepe Semilitas 유치원 개원



유니폼과 가방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전파와 문맹퇴치와 지역 사회의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보육을 목표로 추진된 Pepe Semilitas 사역의 첫 시작으로 유치원이 지난 2월 23일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동네가 생긴 이래 최초로 생긴 유치원에 최종적으로 38명의 아동들이 등록을 했는데 협소한 교실 사정으로 더 많은 신청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 등록한 아이들 중 상당수가 크리스천이 아닌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복음 전파의 큰 가능성을 얻게 된 의미라는 측면에서 더욱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유치원의 개원 예매가 있던 지난 2월 23일(주일) 저녁 때, 예매를 마친 후에 있던 교제의 자리에서 또래 푸에르떼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라모나 자매가 제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17년 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때 우리가 장차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시작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세우는 일차적인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았던 “자립 자전하는 현지인 교회”에 집중하느라 그 때의 기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허락 하시고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던 주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일의 실현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사실을 성도들의 기억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교실1



교실2



PPS 유치원 로고

개원식과 그 다음날 있었던 수업 첫날 학생들의 등교하는 모습과 그런 자녀들을 줄을 서서 바라보는 부모님들과 성도들의 흐뭇해 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남겼었지만, 그만 제 스마트폰을 수리하는 과정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자료들과 함께 사라져버려서 빈 교실의 모습만 전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문맹퇴치를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이 일이 이제는 교육적인 차원의 사역으로 그 비전이 확대되고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일을 넘어서서 교육적인 사역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바꾸고 보호하는 일에 또레푸에르페 교회가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성도들의 열망이 뜨거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된 유치원은 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용의 수업료를 받지만, 학비가 없어서 감당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부모가 여러 차원의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수업료를 대신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교회의 재정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과 또 많은 분들의 협력과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함께 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형태의 교회개척 <으빠네 쎌뜨로 교회>

저희의 주 사역인 <현지인 목회를 통한 교회 개척>은 현지 모교회의 보호와, 두 가정 정도의 준비된 개척 멤버가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라 출발 자체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지만, 교회가 자리를 잡은 후에 후임자에게 이양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을 하고 신학 교육과 목회 훈련을 시켜서 온전한 사역자로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저의 경험상 최소 10년은 걸리는 지난한 과제일 뿐 아니라, 그런 소양을 갖춘 인재를 찾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세워놓고도 적합한 후임자를 만나지 못해서 애써 세워놓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악화되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몇 차례 겪으면서, 특히 이제 새로운 교회의 개척에 대한 계획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개선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지난 해 10월 중순 경에 저를 찾아온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메로 목사님 가족

‘로메로 목사님’은 어렵게 목회를 하시던 중에 한계 상황 속에서 고심하다가 우연히 저에 대한 소개를 받고 무작정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는 경제적인 요청이 목적이라 제가 잘 만나주지 않는데, 그날 저를 찾아오신 ‘로메로’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사역의 방향에 대한 단초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집중하게 된 것이 파라과이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의 상태였습니다.

너무도 많은 현지인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온 로메로 목사님처럼 온전한 신학적인 교육이나, 목회에 대한 지도나 훈련이 없이 그저 소명 하나만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상태이므로 성도들 역시 연약할 수밖에 없고 교회들 역시 2-30명을 못 넘는 수준에서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현지인 교회들의 안타까운 현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목회자와 현지 교회를 건강한 목회자와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개척 수준의 일이 필요하고 이것이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고, 선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제가 받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지난 20년 가까운 목회와 사역의 경험이 그런 현지인 목사님들께 도전과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저를 찾아왔던 로메로 목사님과 이 일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그 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 새로운 형태의 교회 개척의 첫 시작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원이나 현지인 사역자를 앞세워하는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현지인 목회자와 교회를 바로 세워서 건강하고 유능한 사역자와 재생산하는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지인 목사님께 대한 신학 재교육과 목회 실습에 대한 개별적인 멘토링이 필요하고 연약한 기존 성도들에 대한 양육과 훈련이 동시에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로메로’ 목사님을 도전해서 지난 3월 8일, 로메로 목사님을 현지인 침례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 신학 확장 코스”에 등록시켜서 앞으로 3년 동안 신학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주 한 차례의 미팅을 통해서 그 주간의 목회 활동 내용과 설교에 대한 보고와 점검을 통해 개인적인 목회 멘토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멘토링을 통한 개인 양육이 진행된 후에는 그와 함께 하는 10여명 성도들에 대한 양육과 훈련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파송 받고 와서 지금까지 했던 <현지 모교회를 통한 교회 개척>이 남미에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좋은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현지인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시도되는 교회개척사역 또한 복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 위해 함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남미 디아스포라 KOSTA 이야기

지난 1월 중순 아르헨티나에서 남미의 한인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KOSTA 집회가 열렸습니다. 40년 만의 폭염 속에서 남미 각국에서 30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으로 전기까지 들어 오지 않아 에어컨도 가동 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날 아침 성경강해 시간에 들었던 메시지는 그 모든 불편과 힘든 상황들을 거뜬히 이기고 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 날 아침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 뭐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라고 했을 때 수화기에서 대답 대신 선교사님이 부르는 한 곡의 찬송가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일화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눈시울이 왈칵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저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제 마음과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니 정말 너무도 형편없고, 너무나 경박하기 짝이 없어 왕창 기울어버린 저의 신앙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초라해서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가지고 얼마나 더 누려야 그만 만족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필요 없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평소에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어떤 뜻하지 않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그것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멋지고 감격스런 고백이 과연 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그 날 이후로 이 찬송 506장(새453)이 제 마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 역시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 소식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그 분의 일하시는 손길을, 그리고 그 분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며 소식지를 갈음합니다.

복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넘치고 후원자님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시기를 그래서 혹은 한국에서 혹은 그 외 다른 지역들에서 그리고 이곳 파라과이에서 함께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 최근 기도 제목들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Pepe Semilitas 유치원 사역이 잘 진행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신 또레푸에르떼 교회의 교육 선교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장래에 결실을 맺을 수 있기 위해서
2. 새롭게 재개척이 시작된 으빠네 쉐트로 교회가 건강하고 자립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3. 로메로 목사님이 신학교육과 목회 멘토링을 통해서 건강하고 유능한 사역자로 거듭나도록
4. 밀알(장애인) 사역의 이사진이 잘 구성되고 원활한 운영체계가 갖춰지도록
5. 고 선교사가 다양한 사역과 직분을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도록
6. 8월에 입대를 준비 중인 예찬이를 위해서, 예건이와 예빈이가 청소년 시기를 복되게 지내도록

2013년 3월 20일 고현묵 변성희 선교사 올림